



무르익은 가을 밤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성찬이 차려진다. '9회 광주예술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한국예술총공주시연합회(회장 최규철)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과 전시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12~13일, 22~31일 열린다.

먼저 정순기 광주연극협회가 총감독을 맡아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음악인들의 공연으로 꾸며지는 파트(Part) 1으로 12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축제의 문을 연다.

이번 무대에는 300명이 넘는 순수공연 예술인들이 2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 오후 6시에는 강숙자오페라단이 '오페라 갈라'로 분위기를 돋운다. 이어 17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더울림'이 관현악 앙상블을 이룬다.

광주국악협회는 가야금병창, 판소리, 남도민요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했다. 시도무형문화재 18호 황승숙 명창 등 25명이 가야금병창 무대를 장식하고 광주무형문화재 1호인 이순자 명창과 박애화 명창이 판소리 '어사'를 열창한다. '흥타령', '진도아리랑' 등 남도민요와 광대 연희 예술단의 풍물놀이도 우리 가락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우리 지역 영화인들은 튀미에르 형제가 1895년 만든 최초의 영화 등 고전영화 9편

'광주예술 아트페스티벌' 12일~이달 말...공연·전시 분할 개최

'파트1' 공연 12~13일 5·18 민주광장 국악·무용·연극·영화 등 20여 프로그램



광주문화예술인의 축제 '광주예술 아트페스티벌' 파트 1이 오는 12~1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축제에서 미르메르 다이나믹 익스트림 퍼포먼스팀이 펼친 '안중근-역사 속으로' 공연 모습. <광주예술 제공>

을 상영하며 영화의 발자취를 들여다본다. 또 지난 2015년 운명을 달리한 마지막 변사 신 출 씨가 활동한 영상을 상영한다. 광주연극협회 소속 55명은 뮤지컬 '시카고' 등으로 이뤄진 갈라 콘서트로 연기와

가창력, 춤사위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무대를 선사한다. 첫날 무대는 미르메르 다이나믹 익스트림 퍼포먼스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태권무로 그려내며 마무리한다. 이 팀은 지난해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

동을 그린 '안중근-역사 속으로'를 진중한 몸짓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다음 날 무대는 오후 6시부터 아리문화예술단의 흥겨운 난타공연으로 시작한다. 더불어 음악협회 회원들이 펼치는 합창의 향연에서는 200명의 웅장한 하모니를 펼치고 재치와 해학이 살아있는 '우탕카 코믹쇼'가 관객을 기다린다.

또 아이돌그룹 '힌트'와 가수 진국이, 김미연, 길은미의 가요·팝송 무대가 이어진다.

광주무용협회 소속 단체들의 춤사위도 무대를 채운다. 먼저 한국장작무용 '흑과 백'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연정무용단은 '강선영류 태평무'를 무대에 올린다. 또 서영무용단이 한국무용 '풍류'를, 비상무용단이 현대무용 '운명의 경계'를 선보이며 역동적으로 무대를 꾸민다.

축제는 화려한 불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플래잉 파이어팀이 직접 불을 다루며 다양한 형상을 표현하는 '태양의 조각'으로 무대의 끝을 맺는다.

한편 미술, 사진, 문학, 건축 부문 전시가 펼쳐지는 파트 2는 오는 22~3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예술회관 안팎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528-92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클레토 무나리,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광주 신세계갤러리 23일까지 국내 첫 개인전

'아름다움의 수집가', '감성의 발명가', '재능의 연결자'로 불리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클레토 무나리(Cleto Munari) 개인전이 열린다.

오는 23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클레토 무나리,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전은 국내에서 열리는 클레토 무나리의 최초 개인전으로 선풍, 대구 신세계갤러리를 순회하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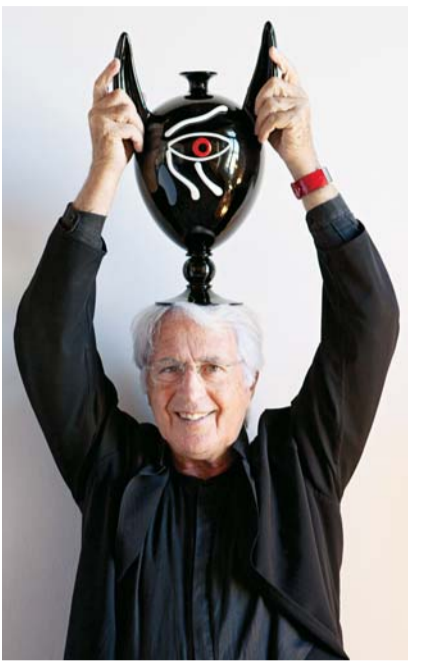
클레토 무나리는 자유로운 감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며 포스터모던 디자인의 초석을 만든 거장이다. 가구, 공예, 주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일적인 형식성을 거부하는 그의 전위적인 작업은 90세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구, 공예, 도자기 등 1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만년필과 시계 컬렉션은 건축가,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이다.

무나리의 작업은 과감한 패턴, 화려한 색채, 비도식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고대의 신화나 르네상스 미술에서 모티프를 차용하면서도 독특한 초현실적인 형상을 더해 함축적이고 개성있는 패턴들을 만들어낸다.

모성의 상징인 이집트 최고의 여신 이시스의 눈은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작품에 등장한다. 유리화병 연작 7점은 파울로 베로네제의 1960년작 '동정녀의 경'에 등장하는 성배에서 모티프를 따온 것으로 개방적이고 화려하며 생동감 넘치는 베네치아 미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 토니 모리스, 조제 사라마구, 솔 벨로루, 윌레 소잉카 등 다섯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3명의 아티스트(이토 토요, 알레산드로 멘디니 알바로 시자, 오스카 투스케 블랑카)와 협업한 펜 컬렉션,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4명의 건축가(이탈리아의 에로레 소사



클레토 무나리 작 'Watch'

스, 한스 홀라인, 미국의 마이클 그레이브스, 일본의 아라타 이조자키)와 협업한 시계 컬렉션 등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

### 한·일 작가 고희서 '평화의 노래'

27일까지 도화헌미술관 32명 참여

남녘땅 고희반도 끝자락에서 한국과 일본 작가의 작품을 만나다.

일본작가그룹 '링 아트(RING ART)'와 2018 도화헌미술관 레지던시 작가, 서울, 성남, 대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작가를 포함해 32명의 작가가 참여한 '평화의 노래(詩)'전이 27일까지 도화헌미술관에서 열린다.

'링 아트(RING ART)'는 나가사키대

학 이카와 세이로 교수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문화그룹이다.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전 및 워크숍, 어린이와 교육, 국제교류, 평화 활동을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카와 세이로 교수는 평화와 국제교류의 의미를 색과 색의 선으로



이카와 세이로 작

연결시켜 보여주며 하타노 신지 작가는 선을 긋는 행위에 주목, 중첩되는 선을 화면에 가득 담아 서로 다른 문화가 결속하는

의미를 은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사카 토모노리, 이노우에 리에, 오구리스 마리코, 나가타 히로야키, 하타노 신지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강북근, 강홍순, 김갑진, 김금남, 김문정, 김정선, 김태현, 김형학, 나안수, 노을, 손준호, 신경애, 장안순, 장영주, 정공정, 최근일, 한임수, 한형서, 한희준, Albert kim 등 20여점이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작품 디스플레이를 위해 일본작가 5명이 도화헌미술관을 방문했고 도화헌미술관 레지던시 작가들과의 소통도 이루어졌다. 문의 061-833-13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신영복체' 무료 공개

### 처음처럼 여럿이 함께

올해 제57돌 한글날을 맞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진보성향 학자 고(故) 신영복 성곡회대 교수의 손글씨로 만든 '신영복체'가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Tlab신영복체'(사진)는 신 교수가 생전에 쓴 엽서의 손글씨를 이용해 개발했다. 신 교수가 생전에

국민대학교 사각디자인학과 김 민 교수에게 기증한 손글씨를 김 교수가 폰트개발 전문업체인 박윤정엔터테인먼트에 무상으로 양도해 제작했다.

박윤정 타이포랩 대표는 "붓글씨를 폰트화한 기존의 'J신영복체'와 달리 이번 공개되는 'Tlab신영복체'는 손글씨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가독성과 활용성이 높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과 타이포랩 누리집(www.typolab.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폰트 명칭과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판매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한다. /연합뉴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 난연소재 · 맞춤형디자인 · 2중복합단열 ·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